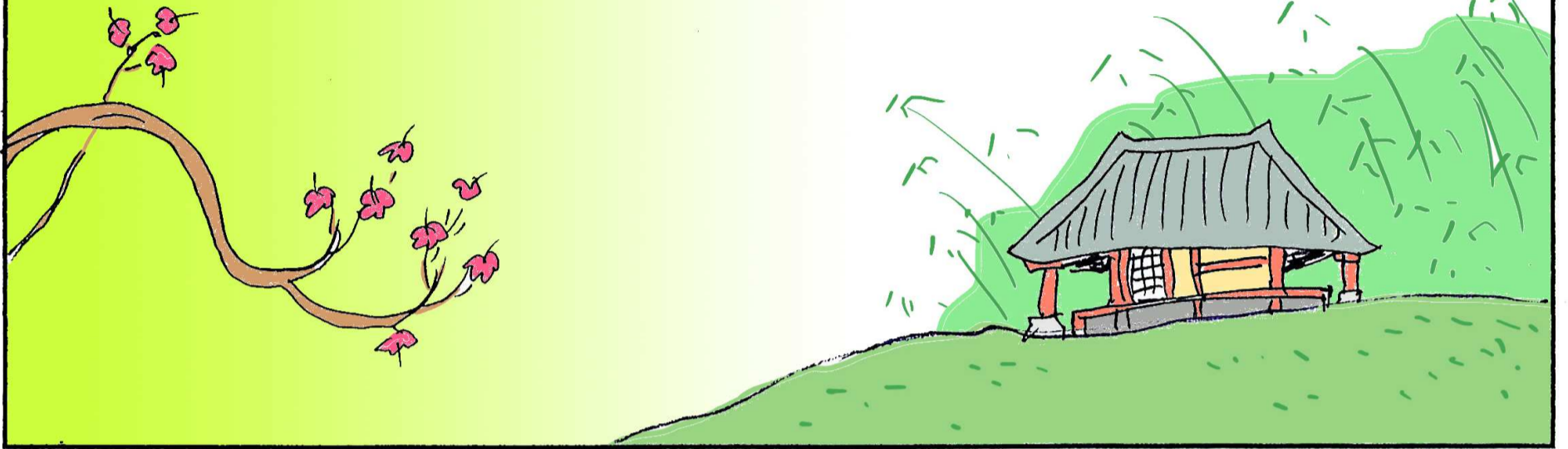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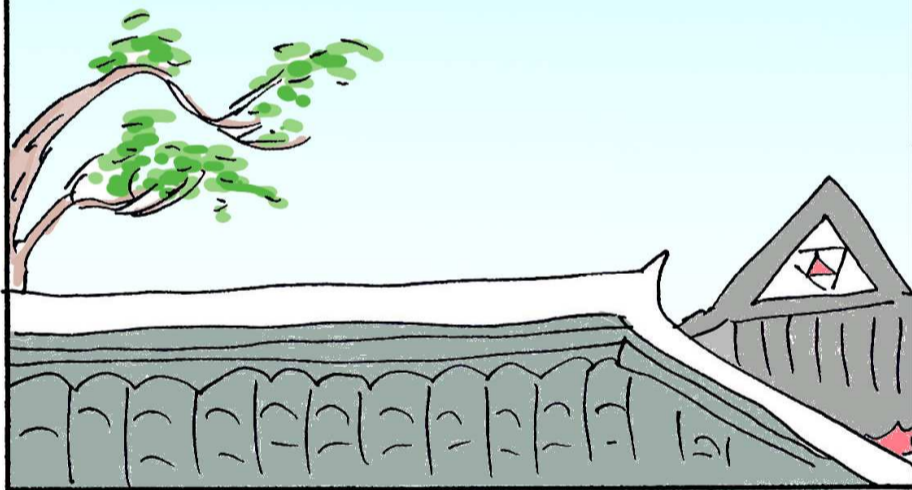


34. 퇴계를 향한 임금의 사랑(56세)

퇴계는 고향에 머물렀지만



명종 임금은 퇴계를 서울 조정에 머물게 할 욕심으로



일이 바쁘지 않은 중추부에 속하도록 발령을 낸다.



시골에 머무는 퇴계는 그것이 부담이 되었다.

내가 아무리 임금의 신임을 받고있다 하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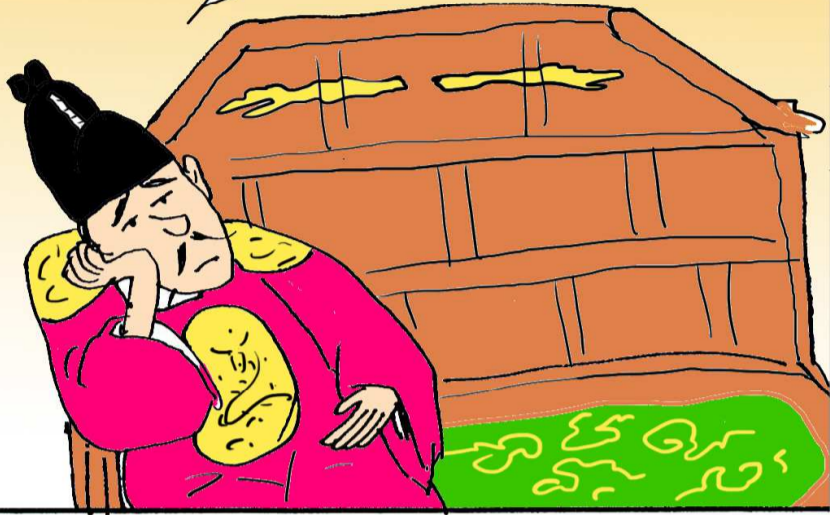


이건 아니지 싶다. 미련없이 사임을 해야 해!



임금은 임금대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듬직한 원로 대신이
곁에 있어야 든든한데 말이야..



옆에 있으면 내가 든든할텐데,
영감이 고집이 너무 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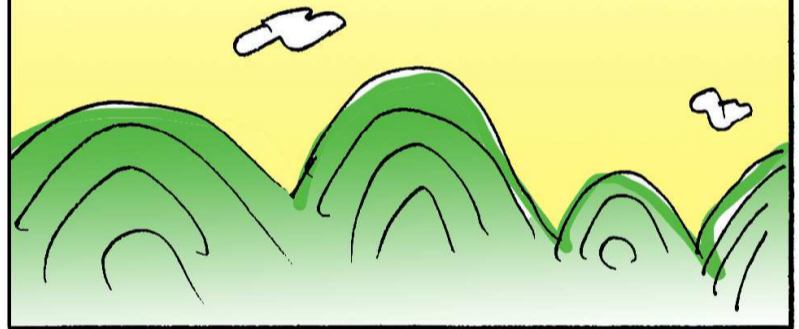
임금은 퇴계에게 홍문관 부제학 자리를 주며
빨리 올라오라는 편지를 보냈다.

속히
올라오시라는
어명ियो!



편지 내용이 구구절절하다.

정은 실력과 성품이 뛰어난
데도 세상에 이름나기를
탐하지 않고 ...



시골에 한가로이 살고있다...

임금은 서울에서 국정을
살피느라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신하는 시골에서
한량하게 지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 물러나기를 좋아하는 뜻이 더욱 존경스러워
다시 서울로 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나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나의 정성이 부족한 탓인지 조정에
벼슬하려 하지 않으려 하니...

아직 아무 소식
없는가?

포기하시죠?
없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서운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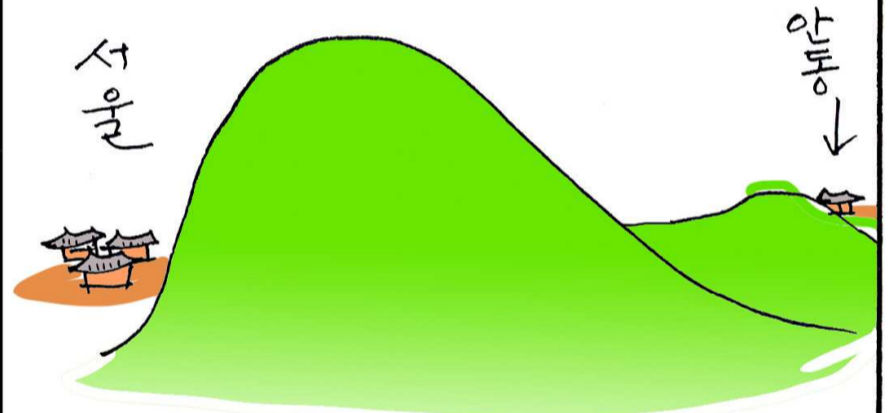
기다리다
목 빠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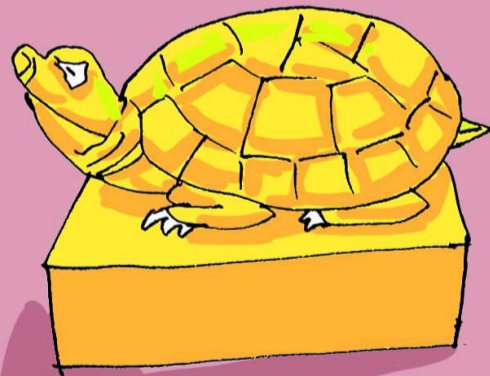
나에게 비록 높고 넓은 덕은 없지만



정은 어찌 산골에 숨어 사는 것만을
좋아하는가 그러지 말고...



빨리 올라와
나의 간절히 찾는 마음을
따르도록 하라.



임금의 퇴계에 대한 사랑이 이와 같았다.